

감리교 농목의 활동과 역사

이 현(목사, 감농목 총무)

1.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소식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대 자루를 뒤집어 쓴 채 국회 앞에서 물대포에 맞아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울부짖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한 장의 보도사진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이 험난한 파고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밑둥이가 벗겨진 나무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말라죽고 말 것인가?

그 지역과 경제와 문화 속에 함께 숨을 쉬고 있는 농촌교회 역시 이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우리만큼 조용한, 너무나도 조용한 우리 농촌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대상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너무나 한가한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인가 쪼인 상태는 틀림없는데 그 지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995년도 UR 협상이후 한국의 곡물 자급도를 보면 30%(쌀을 제외하면 5%)대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¹⁾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과

함께 자국의 식량 창고를 튼튼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²⁾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한국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회원국은 네덜란드(29%), 일본(28%)과 기후조건상 곡물생산이 불가능한 아이슬란드뿐입니다. 수치와 통계에 예민한 사람들도 이러한 통계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과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지요. FTA를 체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공산품의 수출로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논리였는데, 역시 교회나 많은 신앙인들도 작은 농촌의 교회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대세로 그리고 커다란 영향력 있는 교회의 부흥 사례 '선교'의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도 역시 농촌교회 100교회가 5명씩 증가하는 것보다 도시의 한 교회가 500명 1,000명 증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니 어찌면 한·칠레 FTA 체결과 WTO의 DDA협상에서 농촌의 희생에 대한 입장이 없거나 어중간한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울한 소식에 한 교단의 그리 크지 않은 농촌선교 단체를 뒤돌아보는 일에 대해 머뭇거리 보지만 “큰 강물 말랐을 때 작은 물길을 살펴보라”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지금 발견치 못하고 농촌 출구를 혹 발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리교 농목의 지나온 시간들과 미래의 설계를 조출하게나마 펼쳐봅니다.

2. 농목의 출발

1) 태동

198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개신교 몇몇 교단에 농목(농촌선

1) 출처: 2002년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 미국 133.5%, 영국 99.6%, 캐나다 162.8%, 프랑스 194.5%, 독일 123%, 스페인 72.1%

교목회(자회)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는 교단 내에서 농촌 선교정책이 없는 상태였지만 농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 1984년 9월 28일 동부연회 산곡 교회에서 목회자 25명이 모여 첫 발기인 모임을 하고 1985년 3월5일 서울에서 전국적인 감리교 농촌목회자 조직인 농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때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이들은 허원배 목사, 엄상현 목사, 현재호 목사, 임태종 목사, 강인호 목사, 이영우 목사, 한규준 목사, 차홍도 목사, 조연정 목사, 박상만 목사, 박철 목사, 김정권 목사, 송병구 목사 등입니다. 초대회장에는 허원배 목사였으며 이후 김정권 목사, 현재호 목사, 김창택 목사, 박희원 목사, 박철 목사, 조연정 목사, 조규백 목사, 정원기 목사 그리고 현재에 박순웅 목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변화

감리교 농목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농목의 출발부터 10년이 지난 1994년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세 번째 시기는 1999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농목은 회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회는 농촌의 진정한 복음화를 통하여 농민의 인간다운 존엄성 회복(인간화)과 농촌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농촌목회자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①농민신학의 정립 ②지역사회개발 ③목회 정보교환 ④목회자간 상호연대감 형성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농촌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힌 것처럼 농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사회정의 운동, 교단 민주화 운동, 농촌 신학의 정립,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해 왔습니다. 1960-70년대 농촌 운동의 일정한 흐름이 농촌계몽 운동, 지역개발 등이었다면 농목은 농촌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타파하려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일해 왔습니다. 또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태동한 사회 운동과 맞물려서 농촌의 젊은 목회자들이 지역의 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농민회 등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단의 민주적 개혁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교단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선거, 그리고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총회시의 단상점거와 직,간접적인 성명과 참여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농목이라는 조직을 정치적인 조직으로 보게 되었으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평가와 시각은 농목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 왔습니다.

1990년 이후 동구권의 몰락과 문민정부 수립이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운동세력이 그랬듯이 대 사회적 이슈를 명확히 세우지 못했으며 정체성의 혼란과 조직적 구조의 축소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열정을 갖고 활동을 했던 이들이 하나 둘 도시로 목회지를 바꾸면서 농목 내부에서도 농촌선교에 대한 그간의 평가를 좀 더 냉철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안과 초점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평가를 요약하면 “농목의 예언자적인 삶은 사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농목 구성원의 각자의 현장을 세우고 먼저 그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농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평가와 더불어 “목회의 현장 속으로!” 라는 큰 틀에서의 주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활동의 강화라는 다소 피상적인 주제를 세웠지만 회원들의 호응과 또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1993년 농목 총회 주제가 ‘변화하는 세상, 거듭나야 할 우리’라는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려는 노력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출발이 농목의 제2기입니다. 1995년 농목 사무국의 정책연구 부장이던 진광수 목사는 ‘94년 농목활동의 평가와 95년의 과제’라는

발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목이 지금 체제로 재편된 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94년 농목의 재편에는 첫째,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농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둘째, 농목 10년의 역사 후반기에 나타난 침체를 극복하고 힘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의도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편 농목의 정책 핵심 고리는 ‘농민 선교에 집중하는 조직’ 그리고 ‘현장과제에 주력하는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94년 4월7일 원주 성도교회에서 열린 농목 총회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농촌선교의 방향을 수정하고 농목을 재편하는 총회로 모였습니다. 이름도 ‘농촌선교목회자 협의회’에서 ‘농촌선교목회사회’로 바꾸고 조직 자체를 크게 재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광역의 운동에서 주제와 실천과 현장을 담보로 한 미세한 운동으로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때론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해 왔던 활동의 영역을 과감히 정리하였고 ‘농촌’이라는 주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제 중심의 조직 재편은 교회현장이 반농반도(半農半都)의 형태인 회원들 또는 좀 더 목회적 영역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목회개발위원회’로 생명농업과 공동체 운동 농·도 간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생명농업위원회’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간의 지역별 조직(행정 구역별)을 ‘일 또는 과제’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농업위원회에서는 ‘생명, 영성, 공동체’라는 위원회의 주제를 합의했으며 모든 활동은 이 주제에 부합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농도 공동체운동은 생협으로 발전을 했으며, 충북 음성에 ‘농촌선교훈련원’이라는 연구 실천 기관을 만들어 교단의 파송을 받게 되었으며 ‘정주목회 훈련 프로그램’, ‘생명농업의 보급’, ‘영성훈련’, ‘몸 비우기’ 등의 실천들을 진행 시켜 왔습니다.

제3기는 과제 중심의 위원회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농업위원회’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며 활발하게 활동한 반면 ‘목회개발위원회’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위원회를 해체하고 ‘생명 영성 공동체’라는 주제를 목회적으로 안고 갈 ‘소수 정예’ 회원만이 농목회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대폭 회원 정리와 함께 좀 더 미세한 주제들을 안고 가는 것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임의 횟수를 대폭 줄이고 좀 더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했으며 자신의 목회 현장을 일차적 완결의 장으로 삼는 것에 모든 회원이 동의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감리교 농목이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현재 농목의 중요한 실천 과제입니다. 물론 큰 단위로 실천을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텃밭 가꾸기라는 과제는 우리 농목이 추구해야 할 바를 잊지 않는 하나의 서명(sign)과도 같은 것입니다. 항상 나는 농목 회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땅을 보며 기도하고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뜻대가 되는 것이지요.

3. 활 동

1) 정주목회자 훈련

이 훈련 프로그램은 감리교 농목의 재편과 함께 ‘현장 속으로’라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이라는 문제제기에 답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농목의 활동 방향을 잘 담고 있습니다. 격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농촌선교훈련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훈련을 통해서 교단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교단의 정책에 ‘미자립교회에 대한 문제’ 또 ‘도시와 농촌교회의 교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또 다른 것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더 깊게는 농촌의 목회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자의식을 갖게 함으로서 좀 더 치열하게 내면적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 농촌선교훈련원

감리교단에는 농촌선교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촌선교에 참여 하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UR 문제를 계기로 농촌의 위기를 공감하고 훈련과 정책 생산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17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선교국의 책임 하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10월 선교국 위원회에서 위 연구 결과 중 하나로 농촌선교훈련원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으며 1995년 1월 교단 본부에서 훈련원 개원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2명이 공식적인 기관 파송을 받아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많은 농목의 활동과 사업이 상근 실무자가 있는 이 기관으로 이 전되었습니다.

훈련원은 본부와 연회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 독자적으로 정책으로 생산하고 입안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정주 목회 훈련, 농촌선교의 밤, 소식지 발행, 초기 농촌목회자 훈련, 유기농 교육 등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편 된 농목이 좀 더 전문화된 길로 나가는 길에 맺은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농(농촌) 도(도시) 생활 협동조합

농목은 생산과 유통이라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그 사업 들이 산발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해 서로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그러한 유통의 문제와 농촌과 도시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조합이 아니라 감리교 안에 농촌과 도시의 교류의 극대화라는 취지를 갖고 강단교류, 성도들 간의 교제 와 교류 등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4) 농촌선교위원회

감리교는 본부-연회-지방-개체교회 라는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연회(지방회)가 하며 그 결

과는 개체교회에서 나타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연회가 사업을 하는 단위이니까 그 안에 농촌선교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동부연회 내에 '농촌선교위원회'를 농목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을 계기로 중부, 경기, 남부 삼남 등에 같은 의미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연회의 위원회가 모여 1999년 12월 본부 선교국의 주도로 '감리교 농촌선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연회 선교정책에 농촌에 관한 부분을 일정하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의 실무를 대부분 농목회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농목의 사업이 좀 더 외연적 모습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선교회는 각 연회 농촌선교위원회, 농목, 농도 생협, 농촌선교훈련원, 목원대 농촌선교연구소등 감리교 내의 농촌관련 모든 단체가 결합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5) 감리교신학대학 내에 농촌선교과목 신설

농촌선교 훈련원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협의하여 1997년 2학기부터 '농촌현실과 생명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커리큘럼을 개설하였습니다. 농촌 목회는 정거장 목회가 아니라는 인식과 철학을 신학교 때부터 가르쳐야한다는 것이 현장목회자의 대부분의 의견인데 이 과목을 통해 신학생들에게 농촌 목회와 농촌에서 목회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4.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의 시대를 예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짧게나마 그간 감리교 농목의 지나온 시간들과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농목에서는 '몸 비우기'라는 사업을 9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해 첫 주간을 단식을 하며 여러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 내년부터는 특별 준비위원회를 꾸려 이 행사만을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안 에너지 문제, 근본적 생명 농업과

그 가치를 이 사회 속에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농촌의 영성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 할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몇몇 회원은 이 분야에 전심으로 뛰어드신 분도 계셔서 개신교 수도원을 설립하고 차근차근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농업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농목의 과제입니다. '자유 무역' 과 '세계화' 라는 이념 앞에 가랑잎 떨어지듯 힘없이 무너지는 농촌을 그대로 바라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큰 것을 위해(실제로 그것이 큰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작은 것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자비한 자본의 철학을 이겨낼 분명한 소명이 또한 농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가치관이 이런 식으로 달려갈 때 참 힘든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곧 맞이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 농목은 그 미래에 적어도 반딧불 정도의 작은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반딧불이가 제법 모이면 책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빛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요. 해 볼만한 일입니다. 農